2019-CR-07
작은연구 좋은서울 19-13

서울시 거주 장애청년의 노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홍서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홍서윤 청년오픈플랫폼 Y 이사
seoyoonhong@gmail.com

문영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saojungym@daum.net

‘작은연구, 좋은서울’은 시민 스스로 일상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장애청년의
노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연구책임

홍서윤 청년오픈플랫폼 Y 이사

연구진

문영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서론 1

02 선행연구 고찰 3

1_4차 산업혁명과 장애청년 노동인식의 변화 3

2_장애청년 노동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니트화를 중심으로 5

3_장애청년 노동정책 7

4_장애청년 노동 실태 9

03 연구 방법 11

1_연구 방법 11

2_Q 진술문 구성 11

3_P 표본의 선정 13

4_Q 표본 분류 및 통계 분석 15

04 연구 결과 16

1_연구문제 첫째: Q 유형의 구분 16

2_연구문제 둘째: 유형별 특성 19

05 결론 및 제언 25

참고문헌 33

표 목차

[표 3-1] Q 진술문 12
[표 3-2] P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4
[표 3-3] Q 표본 분류 15
[표 4-1] 요인분석표 16
[표 4-2] 진술문의 요인가 18
[표 4-3] 유형 1의 진술문 및 표준점수와 요인가 20
[표 4-4] 유형 2의 진술문 및 표준점수와 요인가 22
[표 4-5] 유형 3의 진술문 및 표준점수와 요인가 24
[표 5-1] 해외 장애청년 일자리 거버넌스 사례 27

01. 서론

2000년대 이후 청년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막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은 불안정성을 강하게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다. 청년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의 불안정성은 생애 소득을 감소시키고, 중장년기 노동시장 참여 양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노후의 불안정까지 이어지므로(이승윤·이정아·백승호, 2016)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에서 다양한 청년 노동정책을 통하여 청년 노동시장 참여의 불안정성을 완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청년은 '청년' 계층으로서의 노동시장에서 겪게 되는 불안정한 지위와 장애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계층이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34.9%로, 동 연령대 전체 인구의 고용률인 61.5%를 한참 밑도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중 15~29세 장애청년의 고용률은 30.6%에 불과하여 전체 인구는 물론 전체 장애인구와 비교할 때 노동시장 참여에서 장애청년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한편 정보산업사회 도래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사회의 변혁으로 인해 근대 사회 이후 유지되었던 노동의 개념과 노동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다. 현대인의 기본적인 노동에 대한 인식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로 말라"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윤리로부터 인간의 생애, 공동체를 구성하였다면, 개인을 공동체에 통합하거나 삶의 단계를 구조화하는 노동의 역할이 약해지며 현대인들은 더 이상 노동을 통해서만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노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단순히 고용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기회의 재분배, 여가 활용 문제, 이에 따른 소득보전 방안 등이 노동에 대한 총체적인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경제,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노동의 변화를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층은, 노동시장에 막 진입을 시작하고 있는 청년 계층이다. 경제,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일자리 감소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청년층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다른 계층보

다 더욱 크게 변화하고 있다(이승윤 외, 2016). Gorz(2005)에 의하면 노동의 의미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소위 'X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었는데 일의 목적과 유용성, 그리고 일 기반 사회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더 이상 정규직 직장을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고, 노동과 분리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청년들도 장애인과 청년 계층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는 물론 경제, 사회구조 변화를 여실히 경험하고 있다. 특히 기계에 의해 대체되기 쉬운 저숙련 노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주변 근로자의 성격을 갖기 쉬운 장애청년에게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일반 청년층과 비교할 때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국내에서 장애청년의 노동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진행되었다. 박혜원 외(2016)는 고학력 중증장애인이 현재 장애인 노동정책에서 배제되는 계층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변용찬(2016)의 연구 역시 20대 장애청년이 장애인 노동시장에서 가장 배제되는 계층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노동시장의 변화 추세나 청년 노동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청년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반영하여 청년과 장애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장애청년이 청년이자 장애인으로, 노동의 개념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노동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 그 유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각각의 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서울시 장애청년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02. 선행연구 고찰

1_4차 산업혁명과 장애청년 노동인식의 변화

1) 청년 노동인식의 변화

인간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통합 기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노동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Gorz(2005)에 의하면 이제 더 이상 노동은 사회적 유대, 응집, 통합,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유연하고, 간헐적이며, 가변적으로 되었고, 노동은 더 이상 개인을 공동체에 통합하지 않으며, 삶의 단계를 구조화하거나, 일생의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의 의미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소위 'X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 이외에 자신의 관심사, 가치관, 욕구에 기초하여 노동의 목적과 유용성, 그리고 일 기반의 사회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정규직 직장을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고, 다양한 프로젝트 기반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노동을 통해서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자 한다. 이들은 회사는 단순히 자신에게 임금을 제공하는 곳이며, 직장과 분리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청년층 노동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적 변혁 역시 청년층의 노동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astells(2000)은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에서 정보기술 중심의 사회로의 변모, 즉 현재 시점에서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변화를 통하여 노동의 패러다임이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산업화 사회가 테일러주의적 분업에서 기반하였다면, 정보산업 사회에서 새로운 파생적 분업 형태가 생겨난다. 실제 수행 업무에 따른 분업이 일어나고(가치 파생적 분업), 조직 자체의 파생집단이 형성되었으며(관계 파생적 분업), 결정개입주체의 분절(결정 파생적 분업)이 생겨났다. 이러한 사회에서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단순 반복작업 등이 줄어들

기 때문에 저숙련 노동자는 사라지는 반면, 고숙련 노동자들에게는 높은 숙련도 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고용 구조의 변화, 직업 유형의 변화, 노동 및 노동시간의 개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Rifkin(2000)에 의하면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현상은 소프트웨어가 노동자를 대체하고, 반복 작업이 자동화되며 노동의 축소를 낳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컴퓨터 문화가 엄청나게 작은 단위로 시간 단위를 조작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고용이 점차 유연화되고, 정규직 노동 대신에 파트타임, 외부용역화, 임시직 등의 직업이 활성화되는 등 노동시장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2) 장애인 노동인식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이다(Schowab, 2016). 기술의 진보는 첨단 장치를 활용하여 인간의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증강 인간(human augmentation)을 가능하게 한다(Schowab, 2016).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신체 기능적 손상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술을 통하여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노동 여건 변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에 따른 디지털화와 자동화로 일자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Frey and Osborne 2017; Muro et al, 2017).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산성 격차는 기술을 통해 좁힐 수 있지만, 절대적 일자리 수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혁명 시대는 결코 장애인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확대해 주지 못할 수 있다.

서정희 외(2020)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의 세 가지 변화가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첫째, 노동의 양적 변화는 절대적 일자리 수가 줄어들 경우, 결국 장애인은 노동시장 진입, 유지, 이직 등 전 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해고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 가장 나중에 채용된다(OECD, 2010). 둘째, 노동의 질적 변화로 단순 반복형 임금 일자리를 기술이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장애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술이 그들의 자리를 대체하고, 비장애 임금노동자 중 기술 혁신에 따른 사업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하향이동할 경우 일자리 경쟁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서정희 외, 2020).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의 질적 변화는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 불안전성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셋째, 플랫폼 노동의 확대이다. 디지털을 통한 비정형 노동은 장애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다. 플랫폼 노동의 확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우회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작동되며, 플랫폼 기반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은 법적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는 점에서 노동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등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어렵다. Shuey와 Jovic(2013)은 불안정한 지위를 가진 장애인 노동자들은 안정적 지위를 확보한 노동자에 비해 정당한 편의 지원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기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노동자는 불안정한 노동 지위와 차별을 더욱 경험하기 쉬울 가능성이 크다.

Castells(2000)에 의하면, 새로운 노동환경이 반드시 실업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1] 새로운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절히 대비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단순 노무 종사자는 27.4%로 전체인구 13.3%의 두 배 이상이며, 임금노동자 중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는 34.6%에 달한다. 따라서 단순 노무 종사자, 비정규직 등 주변 노동자의 성격을 가지기 쉬운 장애인, 그중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청년의 경우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보다 큰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노동'은 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정으로 고용 영역에서의 상대적 통합을 경험한 기성세대 장애인들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_장애청년 노동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니트화를 중심으로

현대에서 '노동'은 단순한 생계유지의 개념을 넘어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의 가치를 지닌다. 장애를 가진 청년에게도 노동은 필수적이며, 자아실현의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이승기 등, 2016). 청년층의 취업난은 특히나 장애청년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장기화한 실업 속에서 노동시장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노동력화 청년층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로 지칭한다(남재량, 2011). 니트는 전통적인 실업자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1) 오히려 선진국에서 실업을 야기하는 것은 이민정책, 가족구조의 변화, 생애주기 상 노동시간의 배분, 새로운 산업체계 등과 같은 사회적 결정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 등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된 이질적 집단이다(김범식, 장윤희, 2020). 니트는 기존의 청년층 실업률이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목받아왔으나 나라마다 이에 관한 규정은 상이하다. 국내에서는 남재량(2006)이 니트란 지난 1주일간 취업자가 아니면서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통학, 가사, 육아를 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없는 15~34세 개인에 해당한다고 하며 이를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로 구분하였다. 김광석(2015)은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니트의 범위를 취업자, 일시휴직자, 정규기관 재학 학생을 제외하였으며, 김기헌(2017)은 OECD의 포괄적 정의를 따르되 비형식 교육형태라도 입시학원이나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 제외하였다.

통계청(2019)에 따르면 육아, 가사, 취업준비, 심신장애 등의 이유 없이 그냥 '쉬었음'에 대한 청년 연령대의 비율이 20대는 14.9%, 30대는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뚜렷한 이유 없이 쉬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우리나라 장애청년의 경우 비경제활동 이행 비율이 높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미취업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높다(김재희, 2017; 박자경, 김종진, 2017). 서울을 대상으로 한 니트 연구에서 심신장애로 인한 니트인 '장애형 니트'는 2017년 기준 전체 표본 중 여성이 3,758명(1.6%)이며 남성이 4,498명(2.9%)이다. 전체 표본에 비해 장애로 인한 니트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지만, 청년 시기의 지속되는 니트(NEET) 상태는 장기 미취업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년 니트의 특성으로 저학력, 저소득층, 협소한 사회적 연결망과 건강 문제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된다(김기헌, 2005; 김문희, 2015). 반면 남재량(2011)은 비구직 니트의 여성화, 고령화, 고학력화 문제를 제시하였고, 채창균 외(2015) 역시 여성화, 고령화, 고학력화와 낮은 자존감을 주요 요인으로 설명했으며, 이로미 외(2010)는 청년 니트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청년 니트의 특성은 장애청년 집단의 비경제활동 특성과도 유사하다. 장애청년은 비장애청년보다 진로 발달에 있어 개인과 사회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부딪히기 쉽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에서도 장애청년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등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적성과 진로에 대한 확신 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진로 선택과 결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한다(최웅용 외, 2009; 김원호·김동일, 2011). 김재희(2019)는 비경제활동 장애청년의 진로장벽 요인으

로 장애 관련 요인, 낮은 심리적 수준, 진로 인식 부재 등의 특성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과 사회관계 부족, 정보 접근의 어려움, 낮은 경제적 수준 등의 특성과 관련한 사회환경적 요인을 꼽았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변화유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하지 않는 유형에 속하는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노법래, 2013; 이계승, 2016).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청년 시기에 비경제활동 상태가 지속되는 장애청년들은 장기화한 니트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장애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자발적인지 또는 경제활동이 불가한 환경 속에서 원하지 않게 비자발적 니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_장애청년 노동정책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동 관련 정책은 주요하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일자리 정책이 주요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며, 일부는 보건복지부의 보호고용 형태가 있으며 기타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일부 존재하나 장애청년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1항을 근거로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통한 자립 지원,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는 고용알선,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취업지원, 근로지원과 같은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의무고용,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부담감면제도, 표준사업장 설립 및 고용장려금 지원과 같은 사업주 지원을 하고 실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 구분 없이 15세 이상 생산인구 중 노동 욕구가 있는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학생 취업지원(워크투게더 센터) 사업의 경우 고등학교나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장애청년에게 집중된 사업임이 돋보인다. 또, 2018년 교육부(일자리총괄과)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협업으로 권역별 거점대학을 선정, 해당 학

교의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지역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거점대학 중심의 진로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8).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복지관 등에서 전일제 또는 시간제 형태로 취업하는 형태이며, 해당 근로에 대한 급여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보호 고용이다.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에 장애청년을 위한 특화 사업이라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의 정책 중 일자리 지원 정책 외 여타 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인 일자리 정책이라 할 수 없으며, 장애청년을 위한 직접적 정책이 아닌 포괄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특성에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12억 원을 투입하여 최중증 및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260개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노동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발굴이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장애청년을 위한 특화된 사업은 아니다(연합뉴스, 2020.05.14.). 한편 서울의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으로는 구직정보, 청년-중소기업 매칭, 강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확대, 아르바이트 청년 보호 등이 주요하며 2020년 약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현재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장애를 이유로 참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청년의 경우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기에 보편적인 청년 정책의 수혜자로서 역할을 다 아우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 외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청년 관련 정책으로는 중증장애청년 자립 씨앗자금 '이룸통장'과 '청년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서비스'가 있다. 후자의 서비스는 만 39세 이하 청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연간 20시간의 문자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주요하게 취업 관련 강의 또는 면접, 직장 내 세미나 및 회의 참석 등 자기계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청년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서비스가 청각장애청년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고용 또는 노동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웰페어뉴스, 2019.03.25.).

요컨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장애청년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 장애청년의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아니므로, 장애청년 집단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반영한 노동정책의 개발이 촉구된다.

4_장애청년 노동 실태

장애인은 노동시장 참여에서 배제되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인구의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인 61.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고된다.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 노동자에 비해 저임금 일자리, 단순노무직 등 저숙련 노동 등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3.1만 원인데 이는 전체인구의 월평균 임금인 255.8만 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또한, 장애인 노동자 중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27.4%인데, 전체 인구의 단순노무직 비율이 13.3%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비장애인 비율의 두 배 이상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장애청년은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으로서의 차별과 청년으로서의 차별을 동시에 받고 있는 계층이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29세 장애청년의 고용률은 30.6%인데, 동 연령대 전체 인구의 고용률이 43.6%이다. 15~29세 장애청년의 고용률은 전체 청년 인구의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년의 연령대를 30대까지 확대하면 30~39세 장애청년의 고용률은 53.4%, 동 연령대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76.0%로 30~39세 장애청년의 고용률 역시 비장애인의 고용률에 비해 한참 밑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 장애청년과 여성 장애청년의 고용률의 격차도 매우 큰 편인데, 15~29세 연령대의 경우 남성 장애청년의 고용률은 31.8%이나 여성 장애청년의 고용률은 그보다 다소 낮은 27.9%였다. 그러나 30대로 넘어가면 남성 장애청년과 여성 장애청년의 고용률 격차가 매우 커져 30~39세 남성 장애청년의 고용률은 62.3%나 여성 장애청년의 고용률은 33.4%로 남성의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장애청년은 낮은 노동 처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박혜원 외(2016)에 따르면 장애청년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정신적 장애인(발달, 정신장애인)의 경우 80%가량이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장애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전체 장애인구의 75%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청년은 장애인 노동시장 내부에서도 열악한 노동지위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고학력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불투명한 장애인 고용 우대 정책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운 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변용찬(2016)의 연구에서도 역시 20대 장애청년

의 실업률이 모든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이 배제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해당 연구들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학력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정보산업사회의 도래 등 사회의 변화로 인해 청년 계층의 노동인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 청년 계층의 노동인식의 변화가 장애청년의 노동인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청년의 상당수가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변화하는 노동시장 내에서 장애청년의 노동인식은 장애가 없는 청년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청년의 주관적 노동인식이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서로 다른 유형의 장애청년은 노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들을 위한 서울시 노동, 복지 정책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서울시 거주 장애청년의 노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② 서울시 거주 장애청년의 노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03. 연구 방법

1_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Q 방법론은 과학적 연구 방법에 있어 주관성과 객관성 사이의 긴장을 해소시킬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연구 방법이다(김순은, 2016). 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장애청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각 인식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주관성을 연구할 경우 혹은 연구대상자가 특정 주제나 자극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구조화할 경우, Q 방법론이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유사한 연구로 발달장애인의 일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인식유형의 연구(최문경, 정현태, 2015), 장애인의 직업성공(careersuccess)에 대한 연구(이효성, 2017) 등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인식 연구가 Q 방법론을 통해 진행된 바 있다. 따라서 장애청년의 노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구를 Q 방법론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_Q 진술문 구성

Q statement를 만드는 방법은 추출형(문헌과 매체 활용)과 구술형(면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추출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다룬 노동인식과 관련된 연구들과 함께,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인식(최문경, 정현태, 2015), 장애인의 직업성공(careersuccess) 개념에 대한 인식(이효성, 2017) 등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세 가지 범주 즉 (1) 전통적 노동인식, (2) 장애인으로서의 노동인식, (3)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30개의 Q 진술문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후 Q 방법론 강의 교수 1인, Q 방법론으

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1인, 청년노동 연구자 1인,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재직 연구자 1인, 장애청년 당사자 2인 등 총 6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중복되거나 의미가 유사한 진술문을 삭제·통합하고, 다음과 같이 29개의 Q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표 3-1] Q 진술문

구분	Q statement (29)
전통적 노동인식 (10)	(1) 인간은 노동을 하며 성취감을 얻는다.
	(2) 인간은 노동을 하여 자아를 실현한다.
	(3) 노동을 해야만 현대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
	(4) 노동은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5) 인간은 노동을 하며 행복을 느낀다.
	(6) 노동을 하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7)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동은 필수적이다.
	(8) 노동은 개인이 생애주기(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에 달성해야 할 목표와 크게 상관이 있다.
	(9) 어떤 노동을 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10)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은 반드시 노동을 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의 노동인식 (9)	(11) 장애 여부, 중/경증과 상관없이 누구나 노동을 해야 한다.
	(12)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것은 노동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13) 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하기 위해 노동이 필요하다.
	(14) 노동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이다.
	(15) 노동은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16) 사회적 배려의 제공은 장애인이 노동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한다.
	(17)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18)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19) 장애인이 노동하지 못하는 것은 손상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 (10)	(20) 사람들은 노동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도 정체성을 만든다.
	(21) 노동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2) 정해진 공간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든 노동을 할 수 있다.
	(23) 전통적으로 좋은 일자리인지(정규직, 전일제, 4대보험 보장 등) 여부가 중요하다.
	(24) 수평적인 문화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25) 어떤 노동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여가를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26) 어떤 노동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27)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더라도(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8) 앞으로 인공지능과 기계가 현재의 노동 수준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다.
	(29)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제는 줄어들 것이다.

3_P 표본의 선정

P 표본은 진술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집합이다. Q 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연구방법이므로 대상자의 수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김순은, 2016). 본 연구에서는 P 표본의 수를 30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 있는 회사 혹은 학교를 통학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 2인이 속해있는 장애청년 네트워크 및 SNS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섭외된 장애청년과 이들을 통해 다시 소개받은 장애청년을 섭외하는 등 편의 표집 방법과 눈덩이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연령범주를 만 19~39세로 넓게 설정하여 장애청년 표본을 선정하고자 하였는데, 장애인의 경우 대학 진학 및 사회 진입이 비장애인보다 늦을 가능성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청년'의 연령범주보다 넓은 범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발달,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청년의 노동시장 배제가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지만(박혜원 외, 2016; 변용찬, 2016) 정신적 장애인의 노동인식은 여타 장애인과 구분될 것이며, Q 분류 과정 참여 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지 않은 장애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P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3-2]와 같다. 먼저 성별은 여성이 17명, 남성이 13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청년이 장애가 없는 청년들에 비해 사회참여 진입이 늦다는 것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을 넓게 설정하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장애청년을 표본으로 삼았는데, 만 19세가 1명, 20대가 14명, 30대가 15명으로, 20~30대의 비율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9명, 초대졸이 3명, 대졸이 14명, 대학원졸이 4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중상 이상이 13명, 중하 이하가 17명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로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장애 유형은 지체, 뇌병변장애를 포함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참여자가 14명, 시·청각장애를 포함한 감각장애 참여자가 14명이었고, 그 외에 언어장애와 신장장애를 가진 참여자가 2명이었다. 장애 정도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25명,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이 5명으로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노동 경험 여부는, 현재 노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가 18명, 과거에 노동 경험이 있지만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참여자가 8명, 대학교 재학 등의 지위로 노동 경험이 없는 참여자가 4명으로, 대체로 과거 노동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표 3-2] P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성별	여성	17	56.7
	남성	13	43.3
	전체	30	100.0
연령	10대(만 19세)	1	3.3
	20대	14	46.7
	30대	15	50.0
	평균(표준편차)	28.73	(4.92)
	전체	30	100.0
교육수준	고졸(대학교 재학 포함)	9	30.0
	초대졸	3	10.0
	대졸	14	46.7
	대학원졸	4	13.3
	전체	30	100.0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상	1	3.3
	중상	12	40.0
	중하	14	46.7
	하	3	3
	전체	30	100.0
장애 유형	지체	9	30.0
	뇌병변	5	16.7
	청각	12	40.0
	시각	2	6.7
	기타(신장, 언어)	2	6.7
	전체	30	100.0
장애 정도	장애 정도가 심함	25	83.3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음	5	16.7
	전체	30	100.0
노동 여부	현재 일하고 있음	18	60.0
	과거 노동 경험 있지만 현재 일하지 않음	8	26.7
	노동 경험 없음 (대학교 재학 포함)	4	13.3
	전체	30	100.0

4_Q 표본 분류 및 통계 분석

[표 3-3] Q 표본 분류

-4	-3	-2	-1	0	+1	+2	+3	+4
(2)								(2)
	(3)						(3)	
		(3)				(3)		
			(4)	(5)	(4)			

가장 동의하지 않음 **가장 동의함**

선정된 P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Q 표본 분류를 진행하였다. Q 표본 분류지에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노동 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질문지를 제공하고, Q 표본 분류 후에 노동 경험에 대해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들의 노동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체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휠체어 등 장애인 접근성이 편한 장소를 섭외하여 Q 분류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문자통역을 제공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분류를 위하여 Q 카드를 설명하며 이들의 분류를 돕는 등 Q 분류와 인터뷰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분류 과정에 앞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결과는 연구의 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점, 개인 정보가 보호될 점 등의 연구 윤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Q 진술문은 카드형 제시문으로 만들어졌다. 각각의 진술문을 하나씩 적은 카드 29개를 준비했다. 조사대상자는 29개의 카드를 정상분포에 가깝게 배열된 위의 그림의 Q 표본 분포도의 빈칸 29곳에 자신의 동의 정도에 따라 강제분류하여야 한다. Q 분석의 설문에 익숙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설문의 내용과 방법을 설명해주었고, 진술문을 읽은 조사대상자가 각 진술문에 대해 동의하는 것, 반대하는 것, 중립적인 것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통계분석은 Q 방법론 패키지 통계프로그램인 PQMethod release 2.11을 사용하였으며, P 표본으로 선정된 30명의 조사대상자로부터 회수된 Q 표본 분포도 자료를 코딩하여 입력하였다.

04. 연구 결과

1_연구문제 첫째: Q 유형의 구분

분석결과 P 표본 30명을 주성분요인분석(PCA)을 이용하여 분석한 다음 변량극대화(varimax)를 통해 세 가지 유형을 추출하였다. 세 유형의 요인설명량은 [표 4-1]과 같다. 유형 1의 설명량은 16%로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은 11명, 유형 2의 설명량은 16%로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은 10명, 유형 3의 요인설명량은 12%로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은 6명이다. 세 유형의 누적 설명량은 44%로 나타나고 있는데, 총 변량이 25% 이상이면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Q 방법론은 유형에 속한 사람의 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각 요인에 속한 사람은 하나의 의견을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김순은, 2016).

[표 4-1] 요인분석표

(* 짙은 색 셀은 해당 유형에 속하는 사람의 설명량)

	요인(Factor)		
응답자	유형 1	유형 2	유형 3
s1	0.3947	0.6326X	0.2331
s2	-0.0424	0.7107X	0.2189
s3	0.3765	0.5811X	-0.0182
s4	0.5681X	0.1651	0.1236
s5	0.1782	0.4075X	-0.0766
s6	-0.097	-0.6656X	0.1848
s7	0.4597X	0.0722	0.1148
s8	0.6154X	-0.022	0.3631
s9	0.0851	0.6057X	0.2759

		요인(Factor)	
응답자	유형 1	유형 2	유형 3
s10	0.1129	0.0316	0.7727X
s11	-0.1474	0.0704	-0.7402X
s12	-0.0732	0.6654X	0.0316
s13	0.0394	0.0452	0.7440X
s14	0.7234X	0.2942	0.1012
s15	0.4646X	-0.2539	-0.0813
s16	0.5239X	0.0692	-0.1075
s17	0.4164	0.2681	0.3359
s18	0.3926X	0.2253	-0.2782
s19	-0.2484	0.4553	0.4087
s20	0.3529	0.2152	0.087
s21	0.4698X	-0.1485	-0.0521
s22	0.461	0.6473X	-0.223
s23	0.4064	0.0576	-0.5467X
s24	0.4276X	0.1916	-0.0329
s25	0.3104	0.6116X	-0.0684
s26	0.7319X	0.0131	0.0775
s27	-0.1036	0.6198X	-0.2082
s28	0.2494	0.2301	0.4861X
s29	0.7488X	0.1691	-0.1053
s30	0.1692	0.3315	-0.6846X
% 설명량	**16**	**16**	**12**
% 누적 설명량	**16**	**32**	**44**

Q 방법론에서 진술문들이 각 유형의 특성을 보여주기에 진술문의 요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각 유형의 특성은 진술문 분류에서 양극단의 값에 기초하여 설명한다(김순은, 2016). 본 연구는 양극단이 +4, -4로 긍정 부정 각각 두 개의 진술문을 갖고, 그다음은 +3, -3으로 각각 세 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된다. ([표 3-3] 참고)

[표 4-2] 진술문의 요인가

Q statement (29)	유형1	유형2	유형3
(1) 인간은 노동을 하며 성취감을 얻는다.	0	-4	2
(2) 인간은 노동을 하여 자아를 실현한다.	-1	-4	1
(3) 노동을 해야만 현대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	0	-3	-3
(4) 노동은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4	-1	-2
(5) 인간은 노동을 하며 행복을 느낀다.	-3	-2	-2
(6) 노동을 하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2	-4
(7)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동은 필수적이다.	-2	-2	-1
(8) 노동은 개인이 생애주기(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에 달성해야 할 목표와 크게 상관이 있다.	1	0	-3
(9) 어떤 노동을 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3	0	-2
(10)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은 반드시 노동을 할 의무가 있다.	-1	-1	-4
(11) 장애 여부, 중/경증과 상관없이 누구나 노동을 해야 한다.	-2	1	-1
(12)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것은 노동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3	1	0
(13) 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하기 위해 노동이 필요하다.	2	-2	1
(14) 노동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이다.	2	2	0
(15) 노동은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1	-1	1
(16) 사회적 배려의 제공은 장애인이 노동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한다.	-3	3	0
(17)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1	0	0
(18)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4	0	4
(19) 장애인이 노동하지 못하는 것은 손상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3	3	2
(20) 사람들은 노동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도 정체성을 만든다.	4	-3	3
(21) 노동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0	1
(22) 정해진 공간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든 노동을 할 수 있다.	1	2	3
(23) 전통적으로 좋은 일자리인지(정규직, 전일제, 4대보험 보장 등) 여부가 중요하다.	0	2	-3
(24) 수평적인 문화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0	-1	4
(25) 어떤 노동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여가를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1	4	0
(26) 어떤 노동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3	3	-1
(27)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더라도(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0	4	3
(28) 앞으로 인공지능과 기계가 현재의 노동 수준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다.	2	1	-1
(29)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제는 줄어들 것이다.	-2	1	-2

2_연구문제 둘째: 유형별 특성

Q 방법론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통해 청년장애인이 갖고 있는 노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다. Q 분석에서 특성은 각 유형이 29개의 진술문에 대해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진술문(그리고 요인가 4, 3),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진술문(그리고 요인가 -4, -3)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제1유형: “장애인 노동의 사회적 지원 필요 강조”형

먼저 제1유형에 속하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및 요인가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동을 하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진술문 6), 노동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거나(진술문 5), 인간이 노동을 하며 행복을 느끼기 때문(진술문 4)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러한 진술문에 대해 제1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강한 반대를 나타내었다. 이들이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어떤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며(진술문 9), 장애인이 노동에서 배제될 때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진술문 12).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갖는 수단적 역할을 인정하며, 노동을 통해 사회가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장애인이 노동하기 어려운 이유가 외부적 요인에서 온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노동에 참여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노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장애인이 노동하지 못하는 것은 손상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문장에 동의한다(진술문 19). 또한,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장에 강하게 동의한다(진술문 18). 따라서 이러한 제1유형을 “장애인 노동의 사회적 지원 필요 강조” 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노동의 수단적 의미를 강조하는 유형이다. 노동 그 자체가 인간에게 의미있다고 여긴다기보다는, 노동을 통해서만 현대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장애인이 일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에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1유형에 속하는 참여자 11인 중 9인이 중증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높았고, 11명 모두 현재 노동을 하고 있거나 노동 경험이 있었다. 즉 이들은 중증의 장애를 가지

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며 장애인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다양한 사회적 장벽들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을 노동시장에서 포섭하기 위한 적극적인 우대정책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의 개발을 꾀할 필요가 있다.

[표 4-3] 유형 1의 진술문 및 표준점수와 요인가

No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18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1.589
9	어떤 노동을 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1.458
12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것은 노동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1.119
19	장애인이 노동하지 못하는 것은 손상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1.023
	비동의	
26	어떤 노동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1.121
6	노동을 하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1.205
5	노동은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1.865
4	인간은 노동을 하며 행복을 느낀다.	-1.971

2) 제2유형 : “노동환경의 변화 필요 강조”형

제2유형에 속하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및 요인가를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이 유형도 제1유형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노동이 가진 가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이 반드시 노동을 할 의무가 있다는 진술문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여(진술문 10), 노동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요구해온 사회적 역할을 부정한다. 또한, 제1유형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노동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다(진술문 6).

이 유형이 갖는 독특한 특성은 전통적인 노동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노동’이 가져온 모습 자체를 거부한다는 데에 있다. 특히 한국의 직장은 상명하복의 문화를 강조하여 왔는데, 제2유형의 참여자들은 수평적인 문화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술문에 가장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진술문 24). 또한, 직장이라는 정해진 공간에서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정해진 공간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든 노동을 할 수 있다(진술문 22)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좋은 일자리’란 정규직, 전일제, 4대보험 보장 등이 이루어지는 일자리라고 여겨왔으나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전통적으로 좋은 일자리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진술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즉 노동의 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유형을 “노동환경의 변화 필요 강조”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제1유형과 제2유형은 공통적으로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각 유형별 특성을 통해 판단하면 이 진술문은 각 유형에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1유형 “장애인 노동의 사회적 지원 필요 강조” 유형에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란, 장애인이 노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 예컨대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의 제도나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물리적, 인식적 환경을 의미한다면, 제2유형 “노동 환경의 변화 필요 강조” 유형에서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란 구체적으로 수평적인 문화, 재택근무, 다양한 노동 조건 등 좀 더 유연성이 추구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제2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 10인 중 5인이 대학교 졸업, 2인이 대학원 졸업으로, 이 유형의 참여자들이 장애청년 중 대체로 높은 학력을 가진 이들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들도 모두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노동 경험이 있었다. 2010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서 중증장애인 2배수제가 적용되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의무고용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을 가진 장애청년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혜택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은 장애인으로 노동시장 참여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기보다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장애인의 몸을 배려하지 않은 직장의 문화나 노동환경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노동환경의 변화 필요"를 여실히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장애청년들을 위하여, 장애청년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참여 자체의 장벽을 제거하는 동시에 이들이 가진 장애와 질병을 고려하는 노동환경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4-4] 유형 2의 진술문 및 표준점수와 요인가

No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24	수평적인 문화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1.755
18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1.674
22	정해진 공간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든 노동을 할 수 있다.	+1.285
비동의		
23	전통적으로 좋은 일자리(정규직, 전일제, 4대보험 보장 등) 여부가 중요하다.	-0.964
8	노동은 개인이 생애주기(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에 달성해야 할 목표와 크게 상관이 있다.	-1.046
6	노동을 하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1.257
10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은 반드시 노동을 할 의무가 있다.	-1.684

3) 제3유형 : “탈 노동 지향” 형

제3유형에 속하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및 요인가를 살펴보면 [표 4-6]과 같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도 제1유형과 제2유형과 마찬가지로 노동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강하게 거부한다. 그러나 이들이 반대하는 진술문(진술문 1, 2, 4) 표준 점수를 살펴보면 제1유형과 제2유형이 반대하는 진술문의 표준 점수보다 높은 절대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은 노동을 하며 성취감을 얻는다거나(진술문 1), 노동을 하며 자아를 실현한다거나(진술문 2), 노동이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진술문 4) 전통적인 노동인식을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참여자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제1유형과 제2유형이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참여의 수단적 역할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참여자들은 전통적으로 노동이 가진다고 여겨지는 명제들을 거부하기는 하지만, 노동시장 참여의 수단적 역할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제3유형의 참여자들은 노동의 수단적 역할에도 동의하지 않으며(진술문 3), 장애인의 노동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진술문 27). 또한, 인간이 하는 여러 활동 가운데 노동뿐 아니라 소비 혹은 여가 역시 중요한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진술문 25, 26). 이 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는 총 6명인데, 다른 유형에서 해당 유형을 강하게 동의하는, 즉 요인가가 양수인 참여자들로만 구성되는 것과 달리, 본 유형에서는 강하게 동의하는 참여자(요인가가 양수인 참여자)와 강하게 비동의하는 참여자(요인가가 음수인 참여자)가 하나의 유형을 구성한다. 즉 제3유형은 노동 이외의 활동의 중요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참여자들과 노동의 중요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참여자 두 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뉜다. 그러나 두 하위 그룹의 참여자는 대체로 연령대가 매우 낮거나(1997~2001년생), 노동참여 경험이 없거나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이 제1유형, 제2유형의 참여자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동 경험이 없는, 향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될 참여자들이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참여자들과 구분되는 노동인식을 가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요인가가 양수인 참여자들은 노동 이외의 활동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서울시 장애청년 정책이 노동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도 이들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4-5] 유형 3의 진술문 및 표준점수와 요인가

No	진술문	표준 점수
	동의	
27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더라도(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183
25	어떤 노동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여가를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1.470
26	어떤 노동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1.285
	비동의	
3	노동을 해야만 현대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	-0.799
4	노동은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1.416
2	인간은 노동을 하여 자아를 실현한다.	-2.172
1	인간은 노동을 하며 성취감을 얻는다.	-2.193

0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와 청년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장애청년이, 노동의 개념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노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서울시 거주 장애청년을 위한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장애청년의 주관적 노동인식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3가지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강하게 거부하는 특성을 드러내었다[2]. 각각 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제1유형인 "장애인 노동의 사회적 지원 필요 강조" 유형은, 중증장애인이면서 현재 일을 하거나 과거에 일을 해본 노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이들은 장애인 노동의 어려움이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여기며, 장애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2유형인 "노동환경의 변화 필요 강조" 유형의 참여자들은, 주로 고학력 장애인이자 현재와 과거에 노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제1유형과 마찬가지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를 강조하였으나 수직적인 노동문화보다는 수평적인 문화, 재택근무, 다양한 노동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 제3유형인 "탈 노동 지향" 유형은 전통적 노동의 가치와 명제를 거부하지만, 노동시장 참여의 수단적 역할에는 동의하고 있다.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뿐만 아니라 소비와 여가 역시 중요한 활동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저연령(1997~2001년생), 고졸, 노동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향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될 참여자라는 점에서 앞서 제1유형과 제2유형과의 구분되는 노동인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동정책은 장애인의 전통적 노동시장 참여와 유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창업, 또는 프리랜서와 같은 다양한 지위의 노동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며,

---

2) 전통적 노동인식 : 노동을 하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한다, 노동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인간은 노동을 하며 행복을 느낀다 등.

공공기관 혹은 기업에 소속하여 이루어지는 노동 참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 노동시장 참여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기술의 진보에 따라 기존의 노동관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노동 행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서울시 거주 장애청년들은 기존의 노동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인식은 장애청년뿐만 아니라 비장애청년에게서도 주요하게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청년 세대의 변화된 인식에 부합하는 청년 정책을 2017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시작해왔으며 이는 한국 청년 일자리 정책의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프리랜서의 노동자 인정, 지역 교류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시도 등이 그것들이다. 보편적 청년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 사업들에 참여할 기회가 장애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되지만, 실제적으로 서울시 청년 정책이 장애청년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장애청년의 독특한 노동인식과 고유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청년은 장애인과 청년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이 교차되는 집단으로, 이들을 위한 노동정책은 보다 개별적이고 섬세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청년과 관련한 서울시의 정책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지자체-교육기관-민간기업의 삼자 협업구조를 통한 장기적인 일자리 플랜이다. 둘째, 기술의 진보에 따른 장애청년 특화 일자리 발굴이다. 셋째,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직무 개발이다. 넷째, 플랫폼 노동과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이다. 다섯째, 장애청년 기본소득 보장 제도 마련이다.

먼저 지자체-교육기관-민간기업의 삼자 협업구조를 통한 일자리 플랜은 영국과 미국,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해 볼 수 있다. 영국 에든버러시의 경우 NHS(영국국민건강서비스)와 에든버러 대학, 민간고용연계기업(Into Work)과 파트너십을 맺고 스코틀랜드 장애청년(16~29세)의 고용시장 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5년간 인턴교육을 받은 116명 중 93%가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었다(정기성, 2019). 이러한 과정은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노력 외에도 학계가 포함되어 장애청년의 고용 창출에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표 5-1] 해외 장애청년 일자리 거버넌스 사례

영국 에든버러시 거버넌스 사례 - 영국 NHS(국민건강서비스) - 에든버러 대학 - 민간고용연계기업(Into Work) 파트너십 - 스코틀랜드 장애청년(16~29세) 고용 불평등 해결 프로그램 실시 - 5년간 인턴교육 후 취업하는 방식으로 전체 중 116(93%)명이 정규직 취업
미국 장애학생 인력채용 프로그램(Workforce Recruitment, WRP) 사례 - 민간기업 및 연방기관과 장애대학생(졸업생) 연결 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직 또는 임시직 근로로 연결
핀란드 브릿지 프로덕션 스쿨(Bridge Production School) 사례 - 비진학, 학업 지속이 어렵고 소외되기 쉬운 학생 대상 직업훈련 교육과정 개설 - 교내 식당, 교내 차고 등 교내 회사에서 직업 훈련 교육을 실시 - 특수 직업 교사와 직무지도원 배치 및 학과 과목과 실용적 업무를 결합한 교육 - 전체 60명 중 17명 취업. 소외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에게 사회적응 기회 제공

미국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 장애대학생 중점 인력 채용 프로그램(Workforce recruitment, WRP)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내의 연방 및 민간 업체와 장애를 가진 대학 졸업생을 연결해주는 채용 추천 프로그램으로, WRP를 통한 장애대학생의 취업 열의가 상당히 높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하는 장애대학생들의 인력 풀(Pool)을 제공하여 장애인 채용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의 요구사항과 적절히 매칭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이미지, 2020). 1995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이미 수천 명의 장애 대학생들이 임시 또는 영구직 고용 기회를 제공받은 성공사례를 보고하고 있으며, 현재 매년 320개 대학에서 2,500명 이상의 장애대학생들이 채용담당자와의 면담 기회를 가지며, 실제로 WRP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부 연방 고속도로국에 취업한 장애청년이나 증권거리위원회 인턴을 시작하여 채용된 시각장애청년 등 많은 성공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브릿지 프로덕션 스쿨(Bridge Production School)이 루오비(Louvi)전문대학교의 협조로 실습 기반의 직업 교육 학교[3]을 구성, 특별한 지원 없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이 프로덕션 스쿨에서는 개방된 고용시장이나 일반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 대안훈련, 개인 진로 제공, 직업 역량 습득 및 개인 일상생활 기술 개발 등을 습득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다. 학업 과정은 학교 적응이 힘든 학생들에게 교내 건설 서비스, 교내

3) Bridge Coaching Association

식당, 교내 차고 등 교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며, 특수 직업 교사와 직업 코치가 배치되어 장애청년의 개인적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직무지도를 하며, 수업은 학과 과목과 실용적 업무 과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제 개방된 고용시장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업무 훈련은 전체 60명의 학생 중 17명을 교육과정 후 취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13명은 다른 직업 교육 과정을 이어갔고 나머지는 개인적 상황에 따른 변화나 교육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브릿지 프로덕션 스쿨을 통해 비진학 청년들은 직업 교육과 훈련을 경험하며 사회로부터의 소외가 낮아졌고, 실제적인 업무와 조직을 경험하면서 사회 적응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최지아, 2020).

영국, 미국,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이 요구하는 장애인 인재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의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함을 엿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인권센터 내 장애학생지원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앞서 세 사례를 서울시에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는 장애인일자리지원통합센터가 있으며,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등이 상당수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일자리 연결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기관이 장기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 내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굴된 인재들을 기업이 우선채용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함과 동시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발굴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장애인 채용 방식보다 훨씬 검증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대적 일자리 부족은 장애인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비대면 노동의 경우 장애 차별을 넘어 장애 패싱(passing)의 우려도 있으나(서정희 외, 2020), 한편으로는 대면 노동과 달리 신체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제2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은 장애인의 몸을 고려하는 노동환경의 변화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변처리의 어려움이나, 활동지원시간의 제한, 출퇴근시간 교통이용 불편으로 인하여 단시간 근로 또는 재택근무를 선호하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비대면 노동이 훨씬 더 필요할 수 있다. 장애청년의 경우 의무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을 마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비대면 일자리 발굴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국내 비대면 장애인 일자리로는 웹 또는 방송 모니터링이 주요하며, 일부 바이럴마케팅, 웹디자인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 기존 근로방식도 재택근로 형태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면서, 앞으로 재택 일자리는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다. 유튜브 BJ나 작가, 온라인데이터 클리너, 온라인교육/회의 오퍼레이터, 드론 택배기사, TV 관제센터 모니터링 등 새로운 직종의 발굴은 무궁무진하다(정광진, 2017).

서울시의 경우 뉴딜일자리 정책을 통하여 청년, 장애인, 일반시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장애인 직업군 발굴을 위하여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연계하여 장애인에게는 기술산업 및 새로운 직업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장애청년의 진로설정과 고용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서울형 뉴딜일자리의 경우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배치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발굴에 있어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장애인 직업 개발을 위한 뉴딜일자리 진행에 앞서 장애청년의 수요를 확인하여 매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요자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공급자를 위한 정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2020년에는 26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2019년 발표된 서울시 산하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살펴보면 단기 근무형태의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늘어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기관은 18개이고, 이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9개[4]였다. 이로 인하여 2년 동안 약 5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산하의 기관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방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기관들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없다'고 한다. 물론 특화된 기술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장애인 인재를 찾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서울시 산하 기관을 살펴보았을 때 9개 중 3개 기관이 문화·예술 관련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나 민간기업이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을 선발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장애인 스포츠 선수에게는 일자리와 훈련비용을 지원하며 기업 상생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빗대어 본다면 서울시 산하의 문화예술기관 내 장애인 예술인들의 고용을 적극 권장할 수

---

[4] 2019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서울시 산하 기관은 서울시립교향악단(0%), 서울시50플러스재단(1.1%), 서울디자인재단(1.9%), 서울에너지공사(2.2%), 세종문화회관(2.4%), 서울의료원(2.5%), 서울문화재단(2.8%), 120다산콜재단(2.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3.1%)이다.

있다. 장애인 큐레이터, 장애인 해설사, 장애인 오케스트라, 장애인 아티스트 등을 고용할 수 있다. Disability Arts Online에서 큐레이터 석사 과정을 진행 중인 Aidan의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2018년 한국장애인관광협회에서는 서울시 새활용플라자를 중심으로 장애인 큐레이터 2명을 배출한 사례도 있다. 더불어 장애인 합창단이나 장애인 연주자, 장애인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고는 있기에 공공기관에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직무개발에 힘써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기업이나 기관에 맞는 직무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예술문화 분야에서의 장애인 일자리 개발도 가능할 것이며, 그 외 의료, 에너지, 상담, 도시 주거 분야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직군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의 기회가 마련되고, 서울시 산하 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 중심의 서울형 일자리 발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뒷받침이다. 플랫폼 노동이나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절대적 일자리 수의 부족으로 하향지원하는 비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우려(서정희 외, 2020)에 대비하여, 최소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자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컨대, 공공기관 중심의 플랫폼 노동의 경우 최소 장애인에 대해서는 법적 노동자로 인정한다거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재택근무 직군 개발 또는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일정시간 재택근무 활용과 기술산업 중심의 직군 중 일정비율을 장애청년 일자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기업에까지 제도의 수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산하 기관, 사회적 기업, 연계 기업 및 민간단체에 적용할만한 수준의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넷째, 진보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기술 및 보조공학 지원도 절실하다. 서울시의 서울시보조기기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이동보조기기, 생활보조기기 등을 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량이 매우 부족하여 대게 1년 이상 대기를 하거나,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품목들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장애인 노동자의 직무수행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과 같이 법적으로 노동자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4차산업 관련 기술직군이나 플랫폼 노동(재택근무 포함)을 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기술 및 보

조공학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 월간지에서 재택근무에 따른 개인 주거지의 업무용 사용에 따른 월세[5] 지급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춘 기업의 복리후생 변화의 필요를 다루었다(시사인, 2020.06.10.). 또한, 플랫폼 노동과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개인용 PC나 화상회의 장비 등의 구매가 늘고 있다. 장애인 노동자 역시 앞으로는 플랫폼 노동(재택근무)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편의기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이들이 법적 노동자가 아닐지라도, 플랫폼 노동을 해야만 한다면 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편의시설과 편의기기 지원은 필수적이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테이커, 점자디스플레이, 점자프린터를 대여하거나, 청각장애인에게는 음성을 바로 문자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이나 화상 수어통역 등이 상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증지체장애인에게는 눈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안구마우스나 음성인식 IoT 기기들을 대여할 수도 있으며 직무에 따라서 필요한 기기들을 개조할 수 있는 기술개발지원센터의 마련도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최중증장애청년이나 노동 경험이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청년 기본소득보장제도가 절실하다.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수당제도는 6개월에 한하여 매월 50만 원씩 청년의 생활, 취업준비, 학업에 필요한 씨앗자금 지원 정책이다. 장애청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 발생 원인에 따른 산재보험 등을 수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부가적 비용은 비장애청년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복잡하다. 또한, 노동 경험이 없는 중증장애청년의 경우 자신의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 및 사회참여의 불안감과 성인으로서 독립적 생활에 대한 욕구의 충돌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제공된다면 이들의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다. 일례로 서울형 청년수당의 경우 그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이후 전국화 정책으로 확산되었다. 중증장애청년 수당 또는 기본소득보장제도는 학업, 취업준비, 근로를 위한 편의기기 구매, 의사소통지원비용, 취미개발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조화할 수 있으며, 선례를 토대로 소수 중증장애청년 인원을 중심으로 정책실험을 통해 그 효과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인식 연구이기는 하나 제한적 표본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5) 전기, 전화, 인터넷 요금도 포함

양적 연구와 달리 장애청년의 대표성을 가진 특성을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개별 장애인의 객관적 환경 및 사회관계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 셋째, 서울시 거주 장애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타지역 또는 대한민국 전체의 장애청년의 주관적 노동인식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가진다. 넷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표본 수가 적어 장애 유형 및 정도별 인식 유형을 도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세 가지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세대별 장애인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존 세대와 다르게 나타나는 장애청년의 노동인식, 생활에 대한 인식, 문화 인식 등에 대한 연구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노동에 대한 인식 연구를 진행하여 신체 및 장애 특성에 따른 노동의 의미를 연구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 일자리 사례 연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애청년 집단의 독특성과 고유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8,「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추진계획안」, 교육부.

김기헌, 2005, "[일본] 니트(NEET): 일본 청년무업자(若年無業者)의 특징과 실태".「국제노동브리프」, 3(5), pp.55~63.

김기헌,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 의 정의와 결정요인", KLI 워킹페이퍼 , 8 (8).

김광석, 2015, "청년 니트족(NEET) 특징과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김문희, 2015, "OECD의 유럽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 사례 연구",「HRD review」, 18(1), 98-114.

김범식, 장윤희, 2020, "서울시 니트의 특성 분석: 성별 비교 분석",「서울도시연구」, 21(1), 111-128.

김수현, 김원호, 2017, "고학력 중증장애청년의 진로 발달 및 취업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장애와 고용」, 27(3), 167-191.

김순은, 2016,「Q방법론과 사회과학(개정판)」, 조명문화사.

김원호, 김동일, 2011, "장애 대학생용 진로장벽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장애와 고용」, 21(2), 5-25.

김재희, 2017, "청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 변화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9(4), 127-152.

김재희, 2019, "비경제활동 청년 장애인의 진로장벽이 취업이행 및 취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취업진로연구」, 9(2), 1-26.

남재량, 2006, "청년 니트(NEET) 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제7회 노동패널 학술대회자료집」, 140-157.

남재량, 2011, "최근 청년 니트의 현황과 추이(NEET)",「노동리뷰」, 29-40.

노법래, 2013, "시퀀스 분석을 통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패턴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장애와 고용」, 23(1), 109-130.

박자경, 김종진, 2017, "청년층 장애인 일자리 특성 및 취업 결정요인".「직업재활연구」, 27(1), 1-22.

박혜원, 김원호, 김수현, 금창민, 2016,「청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분석 및 고용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변용찬, 2016, “청장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보건· 복지 Issue & Focus」, 311, 1-8.

서정희, 오욱찬, 이지수, 2020,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장애인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일고찰”,「한국장애인복지학」, 47, 89-127.

이금진, 박재철, 2017, “장애청년 니트(NEET)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미래사회복지연구」, 8, 131-151.

이계승, 2016, “장애인의 경제활동 변화유형과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 잠재계층 성장분석(LCGA)을 중심으로”,「장애와 고용」, 26(3), 31-64.

이로미, 박가열, 정연순, 2010, “청년 니트 유형과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진로교육연구」, 23(1), 153-175.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비판사회정책」, 52, 365-405.

이효성, 2017, “중고령 지체장애인의 직업성공(careersuccess) 개념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Q 방법론 적용”,「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1), 357-389.

정기성, 2019, “청년 장애인 대상 훈련·인턴·취업 연계 프로그램(영국 에든버러시)”,「세계도시동향」, 464.

채창균, 민주홍, 양정승, 정지윤, 2015, “청년 니트 (NEET)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직업과 인력개발」, 18(6), 6-25.

최문경, 정현태, 2015, “발달장애인의 일(노동)에 대한 사회복지상의 주관적 인식유형 : Q 방법론에의 적용” ,「장애와 고용」, 25(4). 111-135.

최웅용, 윤현희, 이정애, 2009, “장애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19(2), 5-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0).「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이미지(2020). “미국의 장애청년 고용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세계 장애 동향」, 3(54), 7-13.

최지아(2020). “핀란드 청년층 장애인 직업 교육 사례”,「세계 장애 동향」, 3(54), 14-20.

한수민, 2019,「청년장애인 근로자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umann, Z., 2004,「새로운 빈곤」(이수영 역), 천지인.

Castells, M., 1997,「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정병순 역), 한울.

Frey, C. B. & Osborne, M. A., 2017,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4, 254-280.

Gorz, A., 2005, Reclaiming Work: Beyond the Wage-Based Society, Polity Press.

Mason, P., 2015,「포스트 자본주의 새로운 시작」(Postcapitalism: A guide to our future). (안진이 역), 더퀘스트.

Rifkin J., 2000,「노동의 종말」(이영호 역), 민음사.

Schwab, K., (Ed.). 2016,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 insight report", World Economic Forum.

Shuey, Kim M. & Jovic, E., 2013, "Disability accommodation in nonstandard and precarious employment arrangements", Work and Occupations, 40(2), 174-205.

https://www.moe.go.kr/main.do?s=moe(교육부)

http://job.seoul.go.kr/www/job_support_service/policy/job_youngman_plcy.jsp(서울일자리포털)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통계청)

https://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disabilityarts.online/blog/gill-crawshaw/heres-one-disabled-curator/(Disability Arts Online)

https://www.wrp.gov/wrp0(WRP Program)

김진경, 2020.06.10., "재택근무 하라고요? 집세는 회사가 내세요", 시사인, 664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4

연합뉴스, 2020.05.14., "서울시, 최중증·탈시설 장애인 공공일자리 260개 만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4043200004

웰페어뉴스, 2019.03.25., "서울시, 청년 청각장애인 취업면접 등 '1:1' 문자통역 서비스",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8260

작은연구 좋은서울 19-13

서울시 거주 장애청년의
노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20년 8월 12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연구원은 서울특별시의 출연에 의해
1992년 10월 설립된 독립적인 재단법인이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시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서울의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의 도시문제에 대한
더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보고서,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을 발간하고 있다.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비매품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